

韓國政治分析의 問題點

具 範 謨

서울大學校文理大助教授

韓國政治分析의 問題點을 論하기에 앞서 이번 심포지움의 趣旨가 韓國的인 것을 現時點에 基準하여 歷史的觀點에서 究明하려는데 있는 만큼, 우선 政治面에서의 韓國的特徵을 國內學者들의 研究를 土臺로 指摘해 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政治는 人力으로 統制할 수 없는 要因인 自然地理的 條件, 歷史遺産과 統制할 수 있는 要因인 政治制度 價值信條 이데오르기와의 相互作用의 結果임을 생각하면 韓國政治의 制約要件은 不幸한 結果만을 가져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狹少하고 自然資源이 적은 國土가 日本과 中國을 連結하는 中國大陸의 東北部에 位置하고 있어 繼續的인 外勢의 支配를 받아 왔고 支配的인 外勢의 交替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從前과는 다른 政治制度和 思想의 採擇으로 크게 動搖되어 온 까닭으로 쉽게 韓國的인 것을 찾기가 어려운 形便이다.

抽象的이나마 政治의 韓國的 特徵을 列擧해 보면,

첫째로 政治的 決定論을 들 수 있다. 맑시즘이 經濟的決定論이며 西歐社會의 政治가 社會的文化的決定論이라면 自發的인 社會領域을 거의 갖지 못한 韓國에선 政治가 거의 모든 社會領域을 支配하게 되는 政治的決定論의 典型이라는 것이다. 同一한 言語, 風俗, 歷史를 가진 韓民族이 解放後 20년이 經過하는 동안 完全히 相異한 南北의 面貌를 갖게 된 現實이 이를 證示해 주고 있다.

둘째로 한 社會의 一般文化中에서도 如何히 統治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國民의 價值信條感情的態度를 말하는

政治文化가 權威主義的이라는 것이다. 權威主義的 政治文化, 즉 父慈, 子孝, 長惠, 幼順, 君仁, 臣忠의 儒敎敎理를 遵守하려는 傳統的文化 속에서 社會化된 個人들이 얻은바 行動定向을 2次集團生活에 適用하고, 家庭生活에서도 역시 같은 權威主義的社會化를 持續함으로써 權威主義的 社會性格의 惡循環이 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탓으로 門閥, 地緣, 學閥등이 아직 政治에서 크게 作用하고 있다.

셋째로 國民의 政治參與意識의 缺如를 들 수 있는바, 이 現象은 參與의 門戶가 開放되었드라도 農民의 經濟的 改善과 文化的 向上에 따르는 政治意識의 昂揚의 缺如에 起因된 다고 볼 수 있다. 政黨에 대한 肯定的 同一視가 存在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政策決定過程도 윗사람의 見解에 대한 順應을 基반으로 하고 있어 國民의 實效的인 政治參與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特徵을 提示한 諸學問的業績을 檢討해보면 科學的方法으로 韓國政治를 分析한 長點을 갖는 反面에 마치 韓國의 政治現實이 그 러 하듯이 研究者의 創造的인 能力보다 模倣의 能力만이 지나치게 誇示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韓國政治分析에 있어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해 보면,

첫째로 政治學 者들의 哲學的洞察力의 不足을 들 수 있다. 過去 20년 동안에 걸쳐 韓國의 政治理論家들은 西歐政治思想史의 政治的理念, 價値만을 마치 韓國의 現實에 그대로 妥當하듯이 研究, 敎授해 왔고, 그 研究의 態度도 그 價値와 그것이 생긴 環境과의 關係, 그러한 價値를 生成해 온 歷史的過程, 및 表現된 價値의 意味와 一貫性만을 다루는 歷史主義의 限界內에 머물고 있다. 歷史는 手段이 될 수 있을 뿐임에도不拘하고 政治理論家들이 歷史主義에 만 陷入하여 自身들의 價値나 道德을 究明하지 않고 있음은 許容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歷史的研究마저 韓國政治에 關한 限 거의 遂行되지 않고 있으니 科學的 政治學을

標榜하는 諸研究도 건전한 學問的 基盤을 갖일 수 없다. 남의 必要에서 아니라 自己의 必要에서 問題를 意識하고 提起하는 態度가 아쉬운 理由도 여기에 있다.

둘째로 所謂 科學的 分析을 試圖한 一聯의 研究가 外國의 模型을 無批判하게 借用한 나머지 現實을 說明하기 위한 模型 利用이 아니라 外國의 模型의 妥當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現實을 歪曲하는 結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政治動態의 分析의 경우, 韓國的인 現實에 妥當하는 指標와 變數를 찾지 못하고 外國模型에 依存한 나머지 外國模型을 紹介하는 意味는 가졌을 뿐 韓國의 政治現象을 的確히 分析치 못하는 경우가 許多했다.

한마디로 人間의 能力엔 模倣的인 것과 創造的인 것이 있는데 韓國의 政治現象이나 그를 다루는 政治學徒의 경우, 다 같이 不幸히도 模倣的인 段階에서 徘徊하였을 뿐, 創造能力을 發揮해 보지 못했다. 오늘의 模倣이 來日의 創造가 될 수 있도록 努力할 때, 韓國의 政治學徒는 그들의 學問的 使命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西歐的인 民主政治가 法과 制度의 領域에만 그치고 國民의 精神的인 意識構造로 자리잡지 못한 原因을 밝히고, 政治 및 法制度와 意識構造가 完全히 融合될 수 있는 韓國的 政治體系의 理論을 樹立할 때 韓國의 政治學은 模倣的인 段階에서 脫皮하여 創造的인 段階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